복음신문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毎月一日発行）
2019년2월1일 (화) 제781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김 종 현 · 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青丘文化社

전도주일 설교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

<사도행전 20:22~27>

이 재 익 목사 (니이가타교회)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진리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거짓된 지식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 : 27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 종교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죽어도 사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주거하는 것에, 출세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잘 보면,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은 목숨을 걸만한 일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의 목숨을 걸만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22-24절)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죽었던 사람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롬1:17).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 하면 다른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 방치하는 일이기에 책임이 매우 큽니다(겔33:7-9; 고전9:16). 2019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25-27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부하시기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마28:19-20). 이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목숨 걸고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신6:6-7). 만약 그 일을 잘못하여 자녀들을 지옥가게 만들면 그 책임을 어찌하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고귀한 유산은 돈도 건강도 지식도 성공도 명예도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가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도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안개라고 했습니다(약4:14).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입니다. 부디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타인에게는 유익이 되고 죽어서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살면서 목숨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히11:24-26).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마6:33). 주님 다시오실 날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나갑시다.

모든 교회와 교우들에게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19년을 맞이한 신임 선교사들의 메시지 2

오키나와교회 <곽용길 목사>
2016년 5월 19일 위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파송을 받아 일본에 온지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도 안된 기간이지만 40년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우고 시니어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는 과정을 경험하지만 저는 오키나와교회 특성상 착임한 2015년 2월 26일 그 다음날부터 새벽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하는 분위기이거나, 해야 한다고 하는 강요도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신도 십 여명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도 비가 새는 곳도 많고 고장 난 것도 많고 재활용창고처럼 버려야 할 쓰레기들로 공간마다 넘쳐 났고 문을 열면 어디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교회 신도들도 미군부대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일본인, 한국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후 식사시간이 되면 영어로, 한국말로,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는 일본어도 안되고 영어도 안되고 한국말도 유창하지 않는 충청도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고 뭘 하자고 한 사람들도 그 다음해가 되면 미국으로, 한국으로 전근을 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국처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니 조금씩 교회가 변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의 손끝만을 보는 종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기 전에 포부는 공기 빠진 타이어처럼 되어버렸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새벽제단을 깨우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행복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본선교사가 맞는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오사가교회 <김충락 목사>
2015년 5월 부목사 취임

먼저 각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은 일본으로 온 지 7년,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현재 오사카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샤대학에서 언어를 준비하며 교토교회에서 잠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14년 12월부터 오사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는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정연원목사님과 당회의 배려 속에서 2015년 5월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19년은 더욱 더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성도님들 위에 성탄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미요시교회 <이상덕 목사>
2017년 11월 11일 위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파송받아 서부지방회 미요시 교회에 부임한 건 2017년 5월이고 미요시 생활도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식구 모두 비교적 잘 정착해 왔습니다. 아내의 일본어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 둘도 즐겁게 학교 및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요시가 매우 좋습니다. 가족 모두의 미요시 생활이 꽤 행복한 것은, 언제나 신뢰해주는 미요시 교회의 여러분, 친해진 이웃 분들, 여러 만남으로 이어진 분들 덕분입니다.

미요시 교회는 일본어로 예배하는 15명 미만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돌파해야 할 한계선이 있습니다. 목사 혼자 애가 타서 움직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해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19년 교회표어 "예배의 기쁨으로 사는 교회" 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현되는 것이, 전도를 향한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같은 히로시마 현의 후쿠야마(福山) 전도소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을 빌려서 월 2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자 분들이 많고 예배 언어는 주로 한국어입니다. 현재 이곳의 임시당회장은 저입니다만, 이 공동체는 정식으로 담임목사가 필요합니다.

후쿠야마 전도소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중부지방회

김명균목사 위임식 거행
나고야교회 제8대 목사로 취임

지난 2018년12월16일 오후, 중부지방회 나고야교회에서는 김명균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14년간 나고야교회를 목회해 왔던 김성제목사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 총간사로 취임하게 되어 2017년 12월에 교회를 떠나게 됨으로 금번에 김명균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다.

중부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당회장 정수환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전병옥목사가 〈복된 교회〉 (사도행전 2 : 42-47)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중부지방회장 최화식목사의 사식으로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으며, 이진용목사, 김승정장로가 권면,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축사를 하였다.

위임받은 김명균목사는 1964년 한국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결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 오사카기독교단기대학, 관서성서신학원 등을 졸업하고 2000년 관서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라교회, 후쿠오카중앙교회에서 목회하였으며, 서남지방회장, 총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가족으로는 기시모토 마리코 부인이 있다.

관서지방회

2019년 신년사경회 개최

오가카 지역, 교토 지역으로 나누어

2019년1월13일(주일), 14일(월)에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추최하는 신년 사경회가 오가카 지역, 교토지역으로 나누어서 가졌는데, 금년에는 미즈무라미츠요시(水村光義)목사(OVMC津田 그리스도교회) 를 강사로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사43 : 19)라는 주제로 가졌다.

오사카지역은 13일(주일) 오후에 오사카교회에서 강사 미즈무라목사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마10:16~24)라는 제목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하여 정열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다.

또한 14일(월) 오후에는 교토교회를 장소로 하여 관서지방회 교역자 및 부인 세미나(주제: Jesus Coaching)를 가지고 저녁에는 62명이 참석하여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것이니' (딤후4:6~8)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 신년사경회는 관서지방회 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1년 동안 충실히 살아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이었다. 신년사경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하면서 관서지방회 교회들이 연합하여 말씀에 은혜받고 기도와 전도, 일본선교에 전념할 것을 바란다.

(보고 : 김대현목사)

色久光明園家族教会 방문

관서성가대연합회와 岡山교회 합동으로

관서성가대연합회와 오카야마교회(岡山教会)가 합동으로 올해도 지난 10월 20일 관서성가대연합회가 色久光明園家族教会에서 합동예배를 가졌다. 올해는 関聖連의 멤버, 오카야마교회, 10개교회 25명의 신도들과 함께 합동예배를 드렸다. 예배 설교는 교토교회(京都教会) 임명기(林明基)목사, 찬송 지휘는 尹聖澤長老. 2부의 친교시간에는 신도들과 한국동요 '고향의 봄', 일본동요 '후루사토(故郷)를 불렀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家族교회의 신도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쓸쓸함을 느끼면서 매년처럼 家族교회의 신도들이 家族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간증을 해 주셨다. "정책적으로 차별, 배제 등에 대한 분노, 그리고 1988년 色久長島大橋가 개통되었을 때에 크게 기뻐하였다." 라는 말이 지금도 나를 포함해 방문한 자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

(보고:김혜숙)

<총회수첩의 사과와 정정>

총회수첩의 주소란에 틀림이 있었으므로 정정합니다.
◎東京中央教会 張承権牧師 email주소 :
amkeaway@gmail.com → makeaway1@gmail.com

서남지방회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서남지방회의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019년 1월 13일 오후에 후쿠오카교회에서 가졌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인과목사(후쿠오카교회)가 강사로,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3: 1~12), 둘째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민12장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도제직회는 서남지방회의 각 교회의 새해 표어와 목회, 그리고 교회의 형편을 듣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멀리 오끼나와에서도 참석하였고 서남지방회의 11개 교회에서 43명이 참석하였다.

(보고:신치선목사)

지역활동 소개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고령자 모아「희망회」주최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20~3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겁고 따뜻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카와사키교회 故 이인하목사가 주관하였던〈도라지회〉에서 시작 되었으며, 약15년전부터는 김일권氏가 자택에서 시작하였는데 김동수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할 때에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로 옮겨왔다.

교회는 선교차원에서 주님의 뜻인 줄 깨닫고 8년전에 〈희망회〉로 개칭하고 양용희전도사를 비롯하여 교우들이 합세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초창기는 10 여명이었는데 계속해서 20명, 30명으로 늘어났다. 보람찬 믿음의 일꾼도 늘어았고 타 교회 신도들도 지원하고 나서고 있다。

〈희망회〉로 개칭한 후 교회 1층에서 기도로 시작 하고 건강체조, 침술로 아프고 힘든 무릎과 허리, 어깨, 머리, 눈, 전신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어떤 95세된 할머니도 꾸준히 다니다 보니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침을 좋아 하고 있으며 모두가 일주일이 기다려 진다고 기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끝나면 교회 3층 식당으로 와서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 1년에 1명, 2명 정도는 교회로 인도하고 결신하여 세례도 받게되어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봉사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기쁘하며 감사하고 있다.

또한 노래를 부르면서 외국에서 타향살이가 서글프고 이제 돌아 갈수 없는 인생길이 허무 하기만 하는지 젊었을 때에 부르던 노래를 아픈 몸도 잊어 버리고 전신으로 목이 매도록 부루고 설렌 마음을 달렌다. 그럴 때 마다 이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보고 : 부봉추 장로)

서부지방회

고베동부교회 김길수·박영경장로 장립식 거행

지난 2018년10월14일(주일), 고베동부교회에서는 태풍으로 연기되었던 김길수, 박영경장로의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한승철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양영우목사가 〈예수의 제자선택〉 (막3:1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장립식은 서부지방회장 한세일목사의 사식하에 진행되었다.

김길수장로는 1957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大阪布施教会에서 세례를 받고, 요코하마교회, 후나바시교회를 섬기고 2008년 부터 고베동부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해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전현숙집사와 2명의 자녀가 있다.

박영경장로는 196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광주동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2004년 부터 고베동부교회에서 집사로서 봉사해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해숙집사와 1명의 자녀가 있다.

●특집●2·8독립선언 (3)

그리고 새로운 도전

재일본한국 YMCA 총무 주 재 형

1844년 6월 6일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22세의 조지 윌리암스를 비롯한 12명의 청년들이 산업혁명 직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근로청소년들의 "정신적 · 영적인 상태의 개선" 을 도모하기 위한 친교회를 조직한 것이 YMCA운동의 시초였다.

이러한 YMCA운동은 구미각국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85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YMCA세계연맹(The World Alliance of YMCAs)이 결성되었으며 1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계 120여개국에 1만4천여의 조직과 8만8천여명의 전문지도자, 92만명의 자원지도자 그리고 6천5백만여명이 회원활동에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청년운동체로 발전해왔다.

세계YMCA와 한국, 일본의 YMCA는 오랜 역사 속에 운동 목적과 비전을 시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해 왔다. 세계YMCA는 1855년의 파리기준을 비롯하여, 1973년의 캄팔라원칙, 그리고 1998년에 채택된 도전21(Challenge 21)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목적과 이념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재일본한국YMCA(재일조선기독교청년회)의 출발은 1906년 서울YMCA가 파송한 김정식 총무가 神田美土代町 소재 동경YMCA 2층 방 하나를 빌려서 성서연구반을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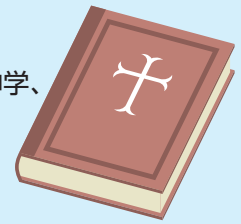
1907년 8월 神田區 西小川町에 독자적 단독 회관을 마련하면서 유학생들이 동경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YMCA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숙소 소개와 일본어 지도 등으로 안정된 유학생활을 지원하였으며, 김정식 총무의 성서를 토대로 한 복음주의적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유학생 개종자가 증가하고 세례 받는 기독교인이 증가하면서 1908년에는 YMCA안에 재일 한인교회의 모체인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국가로 변모한 일본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왔지만 일본인들의 냉담한 시선속에 항상 위축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적 자각과 단결을 위한 운동회를 개최하는 등 YMCA활동 안에서 기독청년운동의 본질을 이해하며 구국운동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100년전인 1919년 2월 8일. 재일조선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는 일본의 불법적인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애국충정의 젊은 유학생들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선언함으로써 국권회복과 민족자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3.1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어 국내외의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2.8독립선언의 중심이 되었던 재일본한국YMCA는 2.8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시대적 요구인 운동과제들을 수용하고 또한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며 목적과 이념 및 비전과 과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롭고 공정한 민주적 공생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YMCA 초대 한국인 총무를 역임한 월남 이상재 선생의 단구 유품인 "一心相照不言中" "하나의 마음은(같은마음) 말없는 중에도 서로를 비춘다(통한다)" 는 한마음 정신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으로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宣教師・神学生研修会案内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方の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日　　時：2019年3月10日 (主日) 17：00 ～ 16日 (土) 17：00
●場所 (講義・宿泊)：在日総会神学校(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履修課目：KCCJ神学・宣教理念、憲法・規則、在日同胞史、KCCJ歴史、日本教会史・神学、
エキュメニカル神学、KCCJ牧会・礼拝・礼典・説教など、
総会行政・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
●交通費・参加費：総会が負担します。
●詳細は総会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 (総幹事080-4377-3927)